희망을 찾아서

국내 최초 사시 합격자 **최영**



시각장애인 최영 씨가 국내 사법고시 역사 이래 최초로 합격해 화제를 낳았습니다.

최영(27)씨는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중심시야만 겨우 남은 시각장애인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일도 어려운데 시각장애인이라니 하며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최씨는 지난 2002년부터 사시에 도전하여 다섯 차례나 1차에 낙방한 뒤 지난해 1차를 통과하고, 이번에 최종 합격자 명단에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도될 줄은 몰랐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겠다, 허투루 살면 안 되겠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사법연수원 과정을 앞두고 있지만, 1년간 장시 연기해 놓은 상태. 어느새 시력이 나빠져 지팡이 보행이 필요하게 되자, 보행, 점자, 컴퓨터 등의 재활훈련도 받아야 하고, 연수원 들어가기 전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챙기고 싶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최씨는 시력이 점차로 악화되어 공부를 포기할까 생각해 본 적도 있지만, 같은 시각장애인인 후배 최민석 씨에게서 컴퓨터를 통해 교재 파일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입력 봉사를 지원받아 비교적 원만하게 사시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입력봉사로 교재를 지원 받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한계가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접근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씨는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원본 파일을 확보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소외계층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아직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좀 더 배워가며 비전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안내견...“걱정하지 마세요 ”

시각장애인의 단독보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맹인안내견은 버스나 택시 등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자동차 운송규칙 제 28조) 안내견을 단지 하나의 동물이라는 개념을 앞세워 승차가 거부되어서는 안되겠죠? 또한 호텔, 병원 등의 공공장소 출입에 제한 받는 것 역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 떨래야 뗄 수 없는 사이란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안내견에 대한 기초상식>

1. 안심하세요! 덩치만 컸지 물거나 짖지 않습니다.
2. 시각장애인 허락 없이 안내견을 만지면 영문을 모르는 주인이 당황할 수 있으니 조심합시다.
3. 먹을 것은 주지 마세요! 늘 먹는 사료 외에는 음식을 조절해야 합니다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25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기관입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전화: 02-9500-103)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국민은행: 835-01-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손으로 보는 세상 | 제15권 1호 통권 102호

2009년 1월 1일 발행

발행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및 편집인 : 권인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전화 : 02-6925-1114 _ 팩스 : 02-6925-1117
Homepage : www.kbuwel.or.kr
E-mail : kbuhongbo@hanmail.net
우)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호 이룸센터 3층 305호

제작 : 쥬비컴 디자인전문회사
전화 : 02-2091-1255 _ 팩스 : 02-2091-1253

표지이야기 : 좌상단 : 한국웹접근성 평가센터 개소식
우상단 : 한국 최초 시각장애인 사법고시 합격자 최영씨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권인희 회장으로부터 기념선물을 증정 받는 모습
좌하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각장애인과 남산 산책로를 걸으며 대화하는 모습
우하단 : 이상득 • 이병석 • 강석호 국회의원이 주최한 시각장애인과의 만남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2차원바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우측상단)

테마기획

신 년 사

다사다난했던 2008년을 힘겹게 마무리하고 새 희망과 꿈을 품고 기축년 새해를 벅찬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그간 애정어린 관심으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발행하는 '손으로 보는 세상'을 구독하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이 기회를 빌려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열악하고 불리한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는데 우리 연합회가 앞장서고 총력을 다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200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독자 제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과 성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시각장애인사회에는 수많은 애경사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시각장애인 최영 씨가 사법고시 사상 한국 최초로 합격의 영예를 안은 것이며, 이 가슴 벅찬 쾌거로 50만 시각장애인과 온 국민이 갖가지 시름과 고통을 잠시나마 잊고 기쁨과 희망에 젖을 수 있었습니다.

최영 씨는 중도실명이라는 크나큰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각고의 노력을 다한 끝에 위업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최영 씨가 시각장애인 제1호 예비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물겨운 투혼과 더불어 교재를 텍스트파일로 제작하여 컴퓨터 음성프로그램으로 학습할 수 있었고, 법무부의 수험 편의가 적절히 제공된 덕분이었습니다. 이렇듯 시각장애인의 독서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출판물의 텍스트파일 제공은 하루 속히 법제화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우리 연합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저작권법 등을 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책무를 다할 것이며, 이에 국민 여러분의 호응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는 장애인이 존엄한 인권의 주체로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권리를 향유하고 완전참여와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한 데 모읍시다.

행복하십시오.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권인희

